

동경대학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차세대 인문학육성 프로그램에 의한 해외파견귀국보고

최종보고서 제출 날짜 2013년 1월 10일

하라다 시즈카

동경대학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한국조선문화연구전공 박사과정1학년
2012년도 여름개인과견

연구주제

한국인 청년들의 대인 퍼포먼스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

파견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울대학교
전라북도 전주 전북대학교
대구광역시 계명대학교

파견기간

2012년 9월 3일 출발 9월 25일 귀국 총 23일

주요연구성과

(1)연구계획

본 연구는 한국인청년에 의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실천되는 ‘애교’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번 조사는 서울·전주·대구 3 도시의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애교행위 그리고 그 실천에 대하여 인터뷰 및 설문지 조사를 한 것이다. 주요한 조사항목으로 애교행위 실천에 네트워크미디어 사용과 온라인공간이 미치는 영향, 애교의 지역간 차이(예를 들어 사투리의 사용과 그 효과, 정보 제공자들의 애교의 지역간 차이에 대한 인식,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접촉 실태 등)가 있으며 온라인공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관해서는 휴대전화 메시지/ 채팅 대화 내용수집 또한 시도하였다.

(2)연구성과

한국인대학생 및 대학원생 34 명(전북대학교 11 명, 계명대학교 13 명, 연세/고려대학교 10 명)에게 1 대 1 형식 반(半)구조화 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녹음하여 구술자료를 취득했다. 또 네트워크미디어 사용과 이로써 매개된 의사소통의 장에서 사용되는 문자언어에 관한 설문지에 개별로 회신을 의뢰하였다. 이러한 인터뷰/설문지에 의한 자료수집과 더불어 온라인 대화에서 애교행위가 발현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채팅/음성 전화가 주된 기능)’의 통신내용을 텍스트데이터형식으로 제공하도록 의뢰했다. 결과로서 여성 인터뷰 대상자 1 명을 제외한 33 명에게서 각기 1~5 명 대상과의 대화내용을 제공 받았다. 온라인 대화내용의 제공에 있어서 ‘동성’ ‘이성’ ‘연상’ ‘연하’ ‘가족’ ‘친한 친구’ 등 대화상대방과 정보제공자 본인과의 관계성에 대하여 미리 설명을 받고 가능한 한 다양한 관계성에 기반을 둔 대화내용제공을 의뢰하였다. 극히 사적인 의사소통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휴대전화 채팅 대화내용을 상당수 수집할 수 있었던 것은 본 조사의 가장 큰 수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뷰 대상자가 제공한 대화내용은 인터뷰 구술자료와 상호참고 및 분석함으로써 온라인상 애교행위 실천에 대한 유익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3) 향후 연구전망

이번 조사에서 취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한국청년들의 애교행위와 네트워크미디어 이용 및 온라인커뮤니케이션의 상호적인 영향관계에 관하여 2012 년 12 월 한국조선문화연구회에서 구두발표를 하였다. 여기에서 받은 지적과 조언을 반영하여 이번 조사와 유사한 주제로 논문을 집필하고자 한다. ‘(남에게) 귀엽게 보이는 태도’로 정의되었던 ‘애교’가 그 의미범위 및 발현형태를 변용하는 양태를 한국인대학생의 네트워크미디어 사용에 주목하여 자세히 논하고 더불어 애교로 매개된 언행이 그들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밝히고자 한다.